

도시의 미래를 묻다

# 2019 고양도신포럼

지난 10월 23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도시재생 및 기후·환경 전문가와 시민 등 3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고양 도시 포럼'이 개최됐다. 특히 세션별 국내외 전문가가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장항습지 등을 사전답사했고, 이를 통해 실행 가능한 고양 도시 아젠다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리 편집부

66

이재준 고양시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도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의 내려야 할 때이며 새로운 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공간의 보전, 치유, 발전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세대와 도시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99



## 1일 차 고양 도시 아젠다를 모색하다



형식적으로 개최되던 일반적 포럼과는 달리 세션별 국내외 석학 등 전문가들이 현황 파악을 위해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장항습지, 원당역 인근, 행주산성 등을 포럼 하루 전에 답사했다. 이번 포럼이 실효성 있는 고양 도시 아젠다를 모색하는 과정 중 하나임을 보여줬다.



## 2일 차 도시재생과 기후·환경을 논하다



도시재생과 환경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도시재생에서는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총괄기획한 피터 비숍 교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프로젝트에 참여한 마크 사우스콤 교수가 참여했다. 환경에서는 유엔기후협약 마삼바 티오이 매니저와 프랑크 볼커 독일 환경청 탄소저감사업 책임자 등이 참여했다.



# GOYANG CITY FORUM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행복 도시 고양도신포럼 6대 아젠다

### 첫째, 도시 고유의 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환경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라는 오랜 질문에 대해 우리는 고양에 담긴 도시의 오랜 지혜와 철학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 둘째, ‘사람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는 곧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양을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터전으로 보전하고 되살리기 위해 사회적 의견 수렴과 합의를 도시 개발과 재생에 반영하겠습니다.

### 셋째, 재생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보전하겠습니다.

재생은 ‘도시의 정체성을 다시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고양의 재생 사업은 도시 고유의 색채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명료히 되살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넷째, 도심과 자연, 사람을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장항습지, 4대 하천, 북한산과 같은 고양의 자연은 다른 도시나 사람,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의 자원입니다. 다자 간 그물망처럼 연결된 생태네트워크를 도시의 골격으로 삼아야 합니다.

### 다섯째, 사람과 나무가 함께 숨 쉬는 푸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탄소배출원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로드맵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 지역에 도시숲과 공원을 고루 배치하겠습니다.

### 여섯째, 세대 간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COP25와 같은 국제 기후변화 대응기구의 권고에 따라 더욱 세부적인 환경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